

# ‘생활 속에 스며드는 자원봉사 참여확산’

## 광주시, 5개구자원봉사센터·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와 업무협약

### 아파트거점봉사단 조성하여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자원봉사활동 실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는 5개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5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회장 서금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정보공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동추진,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아파트 거점별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운영,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파트거점봉사단은 시민들을 현장 속으로 이끌어 참여할 수 있게 유도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할까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거점으로 현재까지 30개가 활동 중이고 올해는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자원봉사활동 추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

람과 방역, 기후위기대응 봉사활동 등을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채종순 센터장은 “아파트 단지별 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문제나 주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며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과 마을 주민과 함께 노력하면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에 봉사단을 만들고 싶은 곳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3)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희기자

## 동구,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선정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가 응모한 사회적경제 ‘이음’ 프로젝트는 동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조선대학교, 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학 협업 프로젝트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국비 5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판로지원, 인재양성, 기타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각 분야별로 추진된다.

## 서구, 노인 대상 ‘24시 안심 출동 서비스’ 호평

광주 서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5개 자치구 최초로 ‘24시 안심 출동 서비스’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이 안심플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면 출동단이 세대를 곧바로 방문,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이 사업은 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 ▲가전제품 고장 등과 같은 일상적 문제들을 돕고자 시작했다. 특히 위험 요인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 즉시 출동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 24시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복지 사업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 효천1지구에 ‘미세먼지 차단 숲·도시바람길 숲’ 조성

광주 남구 효천1지구에 길이 1km와 650m 가량의 미세먼지 차단 숲 및 도시바람길 숲이 각각 조성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 도로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과 효천역 사이 완충녹지 지대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미세먼지 차단 숲의 면적과 길이는 약 1만3,000㎡에 1km 정도이다.

##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공모

광주 북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노후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이 지원대상이며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도장공사, 주차장·단지 내 도로 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와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옥외 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다.

대상단지 오는 5월 중 선정은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16-18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광산구, 공무원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광주 광산구는 24일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청사와 사무실 컴퓨터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교육은 구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민원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장독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영구임대아파트의 늘 행복 프로젝트, 광산경제백신회의 등 광산구의 성과와 사례를 거론하며 민간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책임연구위원은 교육에서 “공유”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수립 과정과 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할 때 협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 옛 전남교육감 관사, 관광 거점 ‘동명공간’으로 조성

옛 전남도 교육감 관사가 여행자와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문화공연이 열리는 문화거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광주 대표문화마을사업을 통해 건물 개·보수를 거쳐 내년

매각되기 전까지 교육감 9명이 거주했다. 광주시는 옛 교육감 관사가 가진 현대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이야기 주제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양한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외는 담장을 허물어 거리 공연(버스킹)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마을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명동 일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광주읍성 동문 밖의 주거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광주의 교육,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고, 최근 학원가와 카페, 공방 등이 들어서 광주의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시는 이같은 지역 정체성을 살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과 전일빌딩245 등 관광자원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 환경 정비, 관광플랫폼인 동명공간 등 관광거점 공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근 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25일 “동명동의 옛 흔적이 깃든 장소로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옛도교육감 관사를 매입해 관광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통해 여행객들과 주민이 함께 문화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대표문화마을사업으로 개보수비 등 27억 투입

### 현대사 의미 살린 관광문화공간으로 내년 3월 개관

3월 개관키로 하고, 이달 구조 보강 등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도교육감 관사는 동명동 154-67번지, 대지 374㎡에 연면적 203㎡로, 1983년 준공돼 2007년 민간에

대표문화마을 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간으로부터 매입했다.

앞으로 건물 내부는 여행자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명동의 다

# “인구문제 해결 전담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종합적 인구정책 수립으로 국가적 위기 적극 대처해야”



구문제 전담 정부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부 조직 내에 이러한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인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근석 의원은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호소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인구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정성을 쏟고 있지만 인구 지표는 날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 같은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또한, 한 의원은 “정부 조직 내에 일관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칭 인구부와 같은 인구 전담부처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정무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각 정당대표에 보낼 계획이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에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